
근현대 한국미술과 동양 개념

정형민 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최열

최열은 1956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광주자유미술인회,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중앙위원을 거쳐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인물미술사학회 창립회원, 월간 《가나아트》 편집장과 가나아트센터 기획실장,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현대미술운동사》,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한국근대미술비평사》, 《한국근현대미술사학》과 같은 저서가 있다. 현재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으로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에 출강하고 있다.

1.

한강을 건너 관악산을 바라보며 정문을 들어설라치면 날카로운 건물 한 채가 사람을 이끈다. 서울대학교미술관 MoA인데 지난 해엔 <한국전쟁의 초상>전이, 올 해엔 <근대 일본이 본 서양>전이 발길을 잡아당겼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은 뭘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과 분노다. 그곳에서 했어야 할 주제와 규모를 갖춘 전시였으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대학미술관인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문제의 전시가 열렸는데 정형민 관장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게다.

정형민 관장이 세상에 내놓은 <<근현대 한국미술과 동양 개념>>이란 저술을 펼쳐 보면, 것처럼 중요한 전람회가 왜 이곳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릴 수 있었는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폭넓은 시야와 앞선 관점으로 근현대미술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학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정형민 관장은 또한 공공미술관의 사명과 역사의식으로 우리 근현대 미술사가 요구하는 주제를 미술관에 적용해 나가는 탁월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저술은 저자의 역량을 거울처럼 드러내는 바가 있다. 이른바 동양이라는 거시관점을 도입하여 그 사이 횡행했던 협소한 시야를 일거에 뛰어넘는 가운데 근세 수백 년 동안의 동양 미술에 대한 관념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다. 16세기 대항해 시대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한국에서의 동양개념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끈질기게 추구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매우 풍부한 해석과 담론의 지평을 마련한 이 저술은 근현대미술사학사에서 하나의 기념비일 것이다.

정형민 교수는 동양 개념을 먼저 마련한 중국과 일본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이르는 기나긴 자취를 요약하고 그것이 어떻게 민족주의와 만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가운데 현대미술에서 그 범동양주의가 어떻게 부흥하는가까지 너무도 흥미로운 주제를 관철시키고 있거니와 저자는 겸손하게도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머무른다고 하였지만, 실로 동양, 동양주의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한 눈부신 성취임에 틀림 없다. 그런 까닭에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미술 관련 수업과정에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또 오늘의 한국미술이 지향하는 바, 동양성, 한국성과 같은 고유한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가나 애호가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동양이란 그 낱말이 생기기 전엔 천하(天下)였고 세계였다. 천하 밖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천하의 반쪽임을 알았지만 서양보다 낙후한 지구의 절반임을 온전히 인정하기까지엔 너무도 큰 희생과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20세기 내내 후진 동양은 선진 서양을 받아들여 절충해 왔고 이제는 그 동양이란 낱말 안에도 서양이 함께 섞여 있는 문명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부흥이 상징하는 바처럼 서양과 대등한 동양이란 이원구조(二元構圖)를 훨씬 뛰어넘고자 하고 있는데 미술에 있어서도 중국에서는 유채화 같은 서양 미술보다 수묵채색화인 중국 미술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려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낙후한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채화 같은 서양 미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수묵채색화인 한국 미술을 아예 내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양을 추종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지만 또 중국을 추종하다보면 수묵채색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불안한 시대, 서양과 동양이 교차하면서 갈필조차 잡기 어려운 시대에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인 ‘동양’을 사유해 보는 일은 우리의 눈길을 조절하는데 큰 힘일 것이다. 동양은 이제 서양에 대응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실체를 지닌 사실로 등장하고 있다. 서양의 침략과 요구에 따라야 했던 지난 몇 세기의 굴레를 벗고 운명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중국을 보면서 여전히 남 따라 하기에 분주한 한국, 그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동양이라는 개념의 진실을 제대로 새길 때가 바로 오늘이다. 정형민 교수의 이 책이 그 새김에 힘이 되어줄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